

3~5세기 그리스도 조상(彫像)과 불상 이미지

이 정 구

성공회대학교

〈요 약〉

3-5 세기에 출현한 간다라 불상과 초기 그리스도 조각상의 비교를 통해 부처와 예수의 공통된 이미지를 찾아보는 글이다. 3-5 세기 간다라 불상과 그리스도 조상의 형태는 모두 그리스 아폴론 상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3-5세기 간다라 불상 수준의 예술적 정교함에 견줄만한 그리스도 조각상이 출현하는 것은 거의 11세기 고딕시기에 이르러서이다. 표현기법에서 단순 비교하여 기독교 미술의 수준이 불교 미술보다 700여 년 뒤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불교와 기독교가 미술을 통해 추구하려했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미술을 포교의 방편으로 삼아 불심을 고양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불상을 높은 예술적 작품으로 발전시킨 반면에, 기독교는 미술을 문맹자를 위한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술성보다는 내용을 잘 전달하려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5 세기에 나타난 불상은 미소 짓는 이미지인 것에 비해 그리스도 조상은 공생애 활동에 관한 내용을 표현한 다양한 이미지이나 주된 것은 대속의 고통의 이미지이다. 또 이 둘의 공통된 이미지는 철학자, 교사로서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바른 종교문화교육을 통해 세계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익히고 체험하는 가운데 상호 다른 종교를 존중하며 자신의 종교관을 건강하게 확립해 갈 수 있도록 돕는데 이 글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핵심 주제어: 3-5세기 공통 이미지, 그리스도상, 부처상, 간다라, 굽타, 아폴로상, 철학자, 교사, 차이, 교과과정, 종교, 문화

I. 머리말

모든 종교적인 형태나 이미지들은 그 원형을 갖고 있어 그 원형의 시원을 찾는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들에는 기독교가 태동되는 순간부터 자생된 고유한 원형의 이미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불교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 만의 원형의 이미지가 있는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이지만¹⁾ 인류문화의 흐름과 상호 문화 간의 교류, 그리고 두 양 종교가 태동 된 지리와 그 연대를 고려해보면 두 종교가 각기 지니고 있는 그만의 고유한 이미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²⁾

이미지와 이론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특정 미술사가들은 ‘이미지가 인간 의식의 발전에 있어서 사상에 선행해 왔다’고 보는 입장에서 성상을 그 시대사상의 산물로 보고 이것을 정신사 및 양식사적 측면에서 연구 해석하기도 한다.³⁾ 이미지는 심적인 표상으로서 시각에만 의지하여 지각되는데 때로는 물질적인 표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스어는 특별히 물질적인 이미지를 가리키는데 에이콘(eikò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에이콘에서 이콘(icon)이 파생한 것이다. 인간이 사물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를 관념이라고 정의한다면 상징이란 사물들에 관한 관념들을 표현하는 심오한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⁴⁾ 즉, 성상이란 그 당시 불교 작가들이 석가모니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 작가들이 하느님에 대한 관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종교의 초기 조각품에 관한 안내문과도 같은 이 소논문의 목적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이미지가 최초로 조각으로 나타난 기원 후 3-5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동시대에 제작된 인도 파키스탄 지역의 간다라 부처상(像)과 그리스도 조상(彫像)의 상호 유사성을 찾아봄으로써⁵⁾ 상호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이 글이 이웃 종교 간의 대화, 종교학(기독교학, 불교학)과 미술사의 간학문 연구측면에서 기초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국내에서 불교와 기독교 양대 종교 간에 많은 대화와 교류가 증

1) Jas Elsner, *Art and the Roman Viewer: The Transformation of Art from the Pagan World to Christia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이 책 저자의 캠브리지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근간으로 보완하여 출간한 것으로써 타 지역 예술이 기독교에 이입되는 것에 관한 논문이다.

2) 예로, 기독교를 담은 교회건축의 형태와 내부공간구조는 로마 바실리카 건축물에 그 원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며 바실리카 건축물의 원형이 무엇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3) Herbert Read, *Icon and Idea* (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1955)와 Erwin Panofsky, *Gothic Architecture and Scholasticism* (New York: Meridian Books,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3). 파노프스키는 중세 고딕건축의 축조방법과 스콜라신학의 방법론의 유사성을 밝히면서 고딕양식이 스콜라 신학에 선행(先行)했음을 주장한다.

4) Susanne K. Langer, *Problems of Art : Ten philosophical Lecture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57), p.130.

5) 이에 관해서는 벤자민 로울랜드(Benjamin Rowland, Jr.)의 *Art in East & West*를 『동서미술론』이란 제목으로 1982년에 열화당(최민 역)에서 발간한 바 있는데, 이 책 중에 82-85쪽이 이 부분이다.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보수 기독교가 절대 다수인 한국 기독교에서 불교에 대한 편견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아가 형성되어가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바른 종교문화교육을 통해 이들이 세계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익히고 체험함으로써 상호 다른 종교를 존중하며 자신의 종교관을 건강하게 확립해 갈 수 있도록 돕는데 이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헬레니즘 조각

플라톤이 한 사물을 모방(mimesis)하는 표현을 진리(이데아)와 더 멀어지는 행위로 간주하고 모방에 의한 예술창작 행위를 혐오했을지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에서의 모방 행위가 교육적, 심리적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미적 쾌감을 준다는 주장이 헬레니즘 예술론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헬레니즘 예술에서 특기할만한 인체 조각들은 대체로 건축물에 부가하는 장식물로서 건물 내 외벽에 부조를 새기거나 광장에 입체 형태의 조각품으로 세워진 것들이다. 이 조각품들은 이집트 조각품과는 다른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현한 작품들이었다. 플라톤이 지향했던 이집트의 견고하며 기하학적인 이상적인 신체비례를 원형으로 삼고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적 실재론에 따라 볼륨을 부가하여 신체의 미를 표현하였다. 고대 그리스는 비례와 균형과 대칭⁶⁾을 이상적인 미의 기초로 삼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감각(눈과 귀)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⁷⁾(그림 1)⁸⁾ 이 미의 기초에 영향을 불어 넣는 것이 예술가들의 몫이었으며 이것이 예술가들의 미의식이기도 했다(그림 2).

기원전 8세기경부터 희랍인들은 정밀묘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지된 파라오 그림의 영향으로 왼 발을 앞으로 내디딘 운동경기에서 승리한 청년상의 딱딱함이 곡선의 몸인 아폴로 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례와 균형과 무관하게 표현된 4등신의 간다라 불상을 포함해 제단용으로 12등신까지 과장되게 표현된 성모 마리아 상을 보며 추하다고 느끼지 않는 점은 종교적 아이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종교미술은 당대의 미의 규범을 일탈한 인상주의 이후의 현대미술과 유사한 당대의 표현예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6) 특히 피타고라스는 미의 준거를 '조화와 비례'에 두었으며 이것은 신플라톤주의에 이르러 광휘로서의 미로 자리한다.

7) Umberto Eco(ed.), *History of Beauty*, (New York: Rizzoli, 2005), p.41.

8) 우아(grace)하고 매력(charm)있는 사랑(love)의 여신인 Venus와 venustas(기쁨)의 어원은 같다. 아름다운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미(아름다움)는 진선미의 이데아와 관련한 보편적 원형으로서의 미를 의미하는데 비해 기쁨은 다소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쁨을 향락(쥬이상스 jouissance)과 쾌락(플레지르 plaisir)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중들은 대체로 긴장을 푸는 데서 오는 후자를 미의 기준으로 삼는다.

Ⅲ. 불교미술

불교미술⁹⁾은 석가의 죽음 이후 그 유골(사리)을 넣을 탑(塔.스투파)을 제작하면서 시작된다. 전설에 의하면 석가의 유골은 아소카 왕에 의해 8등분 되어 그의 광대한 영토 곳곳에 세워진 8개의 탑 안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불교도들이 만든 최초의 불교미술이었으며, 탑은 초기 불교미술을 위한 중요한 유적이 된다. 탑 자체나 탑을 둘러싸는 담등은 석가의 전생의 이야기인 본생담(本生譚)과 불전을 주제로 한 조각으로 장식하였다. 석가 자체를 조형화하고 사원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엽의 일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불교미술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불상(佛像)의 탄생은 이 시기에 인도의 두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인도 북부(서 파카스탄) 간다라 지방과 중부의 '마투라'이다. 이때 대승불교의 몇몇 중요한 경전도 등장한다. 간다라에서는 인도와 헬레니즘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양식, 즉 간다라 양식으로 사원과 불상 제작이 성행하였다(그림 3, 4).

한편 인도 중부의 마투라에서는 인도식 미술로서 석가상을 비롯하여 보살상들을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이 동아시아 등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각 나라별로 상이한 불상과 불탑의 양식을 형성하게 된다(그림 5).

인도 불교미술의 전성시대는 굽타시대(320-550경)이다. 갠지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굽타왕조는 궁정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불교문화를 이룩하였다. 문학,

9) 인도는 인종과 언어가 다양해 하나의 통합된 문화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중심지이자 여러 종교의 발생지로서, 깊은 종교의식이 인도 문화의 다양한 부분들을 통합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이다. 지금의 인도가 형성된 것도 종교적 분쟁의 결과이다. 1947년 영국이 인도를 떠나고 힌두교의 인도와 이슬람교의 파키스탄으로 분할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불교는 붓다, 즉 고타마 싯다르타(B.C.563-483)의 깨달음과 교설(敎說)을 B.C.3세기의 아쇼카 왕이 국가의 정신적, 도덕적 지주로 삼아 통치하면서 널리 퍼지게 된다. 당시 전파된 불교는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부 뿐 아니라 헬레니즘 세계로까지 확장되었는데, 불교의 본질인 자비와 관용으로 모든 중생들을 위한 보편적인 가르침, 철학과 윤리, 지식과 예술을 각지에 전파하였다. 불교가 세계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 사회 집단을 넘어서는 포용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의 흐름을 종파별로 보면 크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누어진다. 대승불교는 석가 열반 이후 1세기 경 새로 일어난 혁신운동으로 인간 구제를 목표로 하고 석가의 존재를 초인격화 하였으며, 소승불교는 전통불교의 입장에서 고행에 의한 깨달음과 자기 구제를 목적으로 하였다. 대승불교는 북방경로를 거쳐 중국, 한국, 일본에서 성행하였고, 소승불교는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등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 관대했던 굽타왕조 시기에는 각 종교들이 평화롭게 지냈던 반면, 대승불교, 소승불교, 힌두교의 시바 숭배 등이 공존하면서 결국 점차적으로 불교는 힌두교에 흡수되었고 그 흡수 과정은 이슬람교의 침입으로 불교가 절멸되는 12세기까지 계속되었다. 붓다는 힌두교 주신 브라흐마와 시바, 특히 비슈누의 열 가지 화현(化現, avatara) 중 하나로 격하되었다. 그러는 동안 불교미술은 동인도를 지배한 팔라왕조의 비호 아래 여러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발전되었으나, 대부분의 기법은 쇠퇴하고 작품은 형식화되었다. 이렇게 불교 미술은 발상지인 인도에서 천년 이상에 걸친 생동감 있는 일생을 마치고 점차 쇠락의 길을 걷다가 종말을 맞게 된다.

음악, 미술이 이 시기에 모두 번성했는데, 특히 미술은 인도 불교미술의 절정기 혹은 완성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불교미술의 최고 걸작, 어쩌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불교 미술들은 이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인류의 불가사의한 업적으로 여겨지는 데칸 고원의 아잔타 석굴 건립이 그 예이다. 굽타시대의 미술은 활기 넘치는 생사윤회의 만화경(萬華鏡)과 부처와 보살들의 초월적이며 정신적인 열반의 경지 사이를 자유로이 넘나들었다. 그 고전적인 아름다움은 불교가 추구하는 정신적인 완성과 초월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초기불교에서는 우상숭배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부처의 모습을 조형화하지 않고 보좌, 법륜, 불족적(佛足跡), 보리수 등을 이용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¹⁰⁾ 또한 다소 배타적이면서 매우 금욕적이었던 초기의 승려들은 사당 혹은 승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원을 짓는 일도 드물었다. 유행승(遊行僧)들이 우기(雨期)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임시거처만을 필요로 했을 뿐이었다.

불상도 최초에는 그림이었는데 석가 자체를 조형화하고 사원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엽 간다라 미술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아시아 전역에서 불교미술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불상(佛像)의 탄생은 이 시기에 인도의 두 지역, 북부 간다라 지방과 중부의 마투라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이때 대승불교의 몇몇 중요한 경전도 등장한다.

IV. 3-5세기 간다라 불상과 그리스도 상

기독교에서 성상 출현은 3세기경으로 추정되는데¹¹⁾ 예수의 조상이 출현하던 3-4세기 동시대의 불교에서 불상은 위에서 밝혔듯이 간다라와 마투라, 크게 두 양식이 공존하였다. 불상의 변천을 살펴보면 간다라 양식과 마투라 양식 외에도 간다라영향을 보이는 마투라 양식과 마투라의 영향을 보이는 간다라 양식이 있다. 2세기부터는 투박한 마투라 불상도 섬세하며 우아한 간다라 불상과 같은 이미지로 변모를 하기 시작한다.¹²⁾ 여기에서는 모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 조각상과 간다라 불상양식에 국한한다.

헬레니즘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1-3세기이며 간다라 미술은 기원 후 2-5세기 이므로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로마미술과 초기 기독교미술, 그리고 불교미술이 지닌 헬레니즘적인 양식상의 유사점이 시공의 차이를 넘어 공존했다는 점이

10) 그러나 일부 선종(禪宗)에서는 기독교의 우상과괴주의자처럼 불상이 전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파가하기도 한다.

11) Andre Grabar, *Christian Iconography: A Study of it's Origi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97.

12) Dietrich Seckel, *Kunst des Buddhismus*, 백승길 역, 『불교미술』(서울: 열화당, 1985), p.197.

흥미롭다. ‘특히 로마의 지방적인 조각이 간다라 미술에 형적을 남기고 있으며, 이시기에 이루어진 양식상의 발전은 초기 기독교 미술과 아주 유사하다’는 점이다(그림 6, 7, 7-1, 8, -8-1).¹³⁾ 그러나 동시대 간다라 지역의 불상조각은 로마지역의 기독교의 예수(그리스도) 조각상보다 빼어나게 정교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9). 이것은 불교 역사가 기독교 역사보다 길뿐만 아니라 기원 후 3-4세기 동시대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기는 기독교로서는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각과 회화의 발달이 불교만큼 발달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입상을 비교해보아도 불상은(그림 10) 그리스의 입상조각(그림 11)과 표현방식이 그 균형과 비례까지 유사하며 겉옷의 주름표현도 매우 정교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입상은 무려 4세기가 되어도 인체의 비례와 균형이 조화롭지 못하고 표현기법도 미숙하고 정교하지 못하지만 그리스풍이다(그림 7-1, 8-1). 이것은 초기 기독교시대에 출중한 기독교 작가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독교의 ‘우상 숭배금지’¹⁴⁾(십계명)와 그리스도에 관한 신성과 인성(기독론)의 신학적인 논쟁(교리)이 정리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간다라 불상은 그리스, 로마지역의 그리스도상과 다르게 상당한 지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상보다 한층 그리스, 로마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착한목자’라는 이름을 붙인 그리스, 로마적인 기독교 작품이 있지만 이것은 기존의 그리스, 로마 작품을 기독교가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2). 이 시대는 대부분 익명의 작가들인데 이들이 본래 기독교인으로서 이 작품을 제작했기 보다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¹⁵⁾

3-5세기 간다라 불상 수준의 예술적 정교함에 견줄만한 그리스도 조각상이 출현하는 것은 거의 11세기 고딕시기에 이르러서이다(그림 9와 9-1 비교, 13, 14). 표현기법을 단순 비교하면 2-3세기 간다라의 불상(그림 4, 9)과 무려 700여 년의 격차가 있지만 단순히 이러한 비교만으로는 기독교 미술이 불교 미술보다 700여 년 뒤졌다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미술로써 불교와 기독교가 추구하려했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곱타 불교는 미술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보는 사람을 절대의 경지로 이끌게 하고 이를 통해 한층 현세적인 현상의 한계를 쉽게 초월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었다.¹⁶⁾ 반면에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시대를 벗어나 겨우 표현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마저 교리가 완성되지 못한 과도기에서 그리스, 로마 작품을 채용하여 그 작품에

13) *Ibid.*, p. 31.

14)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313)한 이후부터 7세기까지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 성 화상 숭배가 큰 문제없이 전개되어오다가 신상제작과 그에 대한 숭배문제가 불거진 것은 레오 3세의 성 화상 숭배금지 칙령(726)이다. 이후 다섯 차례 이상의 논쟁과 회의를 거친 후 이 논쟁은 825년 파리회의에 가서 숭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잠정적인 종결을 짓게 된다.

15) David G., Wilkins, Bernard Schultz, *Art Past Art Present*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90) p.148.

16) Dietrich Seckel, *op. cit.*, p.48.

제목을 붙이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수준의 시기였다. 기독교는 11세기 고딕시기에 이르러서 교회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거의 완성된 교리에 따라 그리스도 상을 기교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성숙한 시기가 된다. 초기 기독교 미술은 불교가 미술을 통해 추구하려했던 것과는 격이 다르게 대체로 문맹자를 교육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작품의 예술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성서와 교리 내용을 손쉽게 담아내는 일에 급급하였던 시기였다. 박해 시기였던 카타콤에서 발견되는 벽화의 내용은 박해에 굴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는 성서의 기적이야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V. 미소 짓는 불상과 고통의 그리스도 상

부처에 대한 표준개념이 형성되어 모든 불교 권에서 인정을 받아 부처에 대한 표현이 꽃을 피우게 된 것이 굽타 미술이며 이 때 제작된 굽타 불상이 아시아 지역에서 부처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다(그림 23).¹⁷⁾ 3-5세기를 중심으로 한 간다라 불상과 초기 기독교 예수조각상의 양식상의 유사성은 헬레니즘과 로마조각의 영향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부처, 예수)에 관해 표현된 조각의 이미지는 사뭇 다르다. 마투라 불상은 예외지만, 간다라 불상의 이미지는 대체로 미소를 머금은 불상이다. 관능적인 선과 유연한 볼륨, 적당한 신체비례에서 나타나는 미소는 열반(Nirvana)의 황홀함을 드러내며 중량감 없이 초월적 신비를 드러낸다. 불교는 예술을 방편¹⁸⁾으로 삼아 포교를 하는데, 이것은 불심이 없는 사람도 불상의 감상을 통해 불심을 고양시켜 불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었다. 국내에서는 석굴암 불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3, 22). 현대 조각가인 브랑쿠지(Constantin Brancusi, 1876-1957)는 불교를 종교가 아닌 자신의 도덕으로 규정하고 뮤즈(Muse)라는 제목으로 조각했는데 이 역시 미소 짓는 모습이다(그림 15).¹⁹⁾ 반면에,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 조각이미지는 예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의 활동 내용을 포함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는 이미지까지 다양하지만 대체로 수심과 고통의 얼굴 이미지이다. 초기 그리스도 이미지는 힘 있는 헤라클레스와도 유사하다(그림 16, 17).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받는 그리스도는 수심에 가득 차 있으며(그림 18), 눈먼 자를 고칠 때나 라자로를 살리는 치유의 그리스도 얼굴은 확신에 차 있다(그림 8, 19). 이렇게 3-4세기 그리스도 조각 이미지의 표

17) *Ibid.*, p.198.

18) 方便, expediencies for promulgating; 불교에서 포교를 하는데 직접 교리를 전하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포교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Jacquelyn Baas, *Smile of the Buddha: Eastern Philosophy and Western Art* (University California Press, 2005), pp.71-72.

현 기법은 신체비례도 조화롭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하여 유치하지만 공생애 기간의 다양한 활동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동시대의 간다라 불상은 헬라와 로마지역의 조각품 이상으로 정교하며 아름답지만 부처의 활동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는 없고 미소를 짓고 있는 이미지가 대부분이다(그림 9). 이것은 기독교가 불교처럼 미술을 선교의 방편으로 삼기보다는 문맹자를 위한 성서내용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두 양 종교가 지니고 있는 예술에 관한 그 목적성의 차이에서 온 것이며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두 종교의 주된 교리는 불교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을 극복한 후 찾아오는 열반이며,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대속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표현되고 있다.²⁰⁾

Ⅵ. 교사로서의 부처와 예수

인체는 그 속성상 경배의 대상이 되기 쉽다. 옛 부터 신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인물을 사용해왔는데, 희랍의 경우 신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신체적 조건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서양에서는 인체승배가 멈춘 적이 없었던 것에 비해 동양은 신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인도는 수도자들의 고행을 돕기 위하여 승배대상을 적당히 추상적으로 표현했으며 중국에서는 신체를 유교관에 따라 교훈적이며 윤리 도덕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²¹⁾ 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 근처 프사마티아(Psamatia)에서 발견된 4세기경 작품인 예수의 대리석 부조(그림 20)와 같은 시기 하다(Hadda)에서 나온 불상(그림 21)을 비교해보면 이 두 상의 의상은 모두 이집트 오사리스의 승려들이나 로마의 이교도들이 걸치던 팔리움(pallium)에서 연유된 것으로 벤자민은 추정한다.²²⁾ ‘특히 둘 다 젊은 여성적인 모습에 길고 곱슬거리는 머릿결, 의상의 유사성은 양자가 그리스, 로마의 종교적 체계에 있어서 유사한 철학적 개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의상에서 나타나는 철인과 교사의 이미지인데, 이것은 부처와 예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공통적으로 적당하여 채택된 것이라는 것이다. 초기 예수 조각상을 제작한 조각가들도 같은 시기 불상을 조각한 조각가들도 이 두 인물을 옛 질서를 대체시킨 위대한 교사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간다라에서 불상을 제작한 지방의 로마 조각가들은 동양의 교사로서 고

20) 싯타르타와 예수의 탄생과 성장, 죽음의 배경은 사뭇 다르다. 부처는 왕가에서 태어나 몸 고생 없이 성장하고 스스로 출가하여 열반한 것에 비해 예수는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 신의 뜻에 의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었다. 이러한 배경이 두 종교의 주요한 교리이기도 하며 이것이 불상과 그리스도상의 표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1) Benjamin Rowland, *Art in East and West*, 최민 역, 『동서미술론』(서울: 열화당, 1982), pp.34-35.

22) *Ibid.*, p.83.

전시대의 웅변가 유형으로, 유라시아의 미술가들에게는 고전시대의 아폴론형태가 불상의 모델로 자연스럽게 채택했으며, 예수를 긴 머리의 젊은 청년으로 묘사했던 초기 기독교 미술도 아폴론 상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이다.^{23),24)} 그러나 이 두 작품들이 헬레니즘 조각보다 거칠고 딱딱한 이유는 점차 추상적인 근동적인 표현방식으로 대체 가는 시기의 작품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고전시대의 자연주의 방식이 아니라 선이나 날카로운 주름을 내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⁵⁾

부처와 예수의 양식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이미지는 부처와 예수 모두 ‘철학자’며 ‘교사’라는 점이다. 이것은 두 인물이 당대의 교사로서의 활동이전에 부처와 예수를 추종하고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인물에 대한 체험이며 믿음이며 가르침의 수단인 설법과 설교는 종교 행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도 하다.

두 종교의 발상지와 출현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각각 고타마 싯다르타와 예수에 대한 체험과 그 표현방식은 유사하다. 위대한 이 두 철인 교사에 대한 상호 우월성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우월한지 피카소가 우월한지를 따지는 것과 같다. 부처의 미소는 중생을 구제하는 수도의 고통 없이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예수의 고통은 대속이라는 사명에 대한 예수 자신의 희생하는 기쁨이 없었다면 십자가상의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위대한 교사로서 가르쳤던 부처의 자비실천과 예수의 이웃사랑 실천은 각기 다른 의미가 아니다.

Ⅷ. 결 어

3-5세기에 나타난 불상과 그리스도 조상의 형태는 모두 그리스의 아폴론 상에서 연유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부처의 수인(手印)이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 미소 짓는 이미지인 것에 비해 예수의 이미지는 공생애 활동에 관한 내용을 표현한 다양한 이미지이나 주된 것은 대속의 고통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둘의 공통된 이미지는 철학자, 교사로서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이렇게 두 형태의 기원과 그 이미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기독교는 그 본질적인 내용과 어긋난 길을 걸어왔다. 같은 종교 안에서 조차 그치지 않는 교리와 파벌싸움, 이웃종교와의 반목과 전쟁, 교리까지 변질시켜가면서 정치권력과 결탁하며 호국활동

23) *Ibid.*, pp.83-84.

24) *Ibid.*, pp.84-85; ‘초기 예수와 부처상 사이에 보이는 양식상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초기 예수상을 제작한 조각가들이 3-4세기 로마의 제작소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북서 인도와 아프카니스탄(고대 간다라)의 불상을 제작한 조각가들은 대부분 로마령 근동에서 온 떠돌이 장인들이었다는 것이다.’

25) *Ibid.*, pp.84-85.

을 해온 것을 반성조차 않는다. 종교의 원형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시대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의 목적성취를 위해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훼손하고 있다.

4세기 이후 계급사회에서 주류화된 불교도 기독교처럼 호국을 우위에 두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주류불교가 국가와 개별정치인과 유착관계를 맺고 안위와 번영을 모색한지 오래다.²⁶⁾ 기독교, 불교 두 양대 종교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철학자와 위대한 교사’의 자세로 상호 검열을 하고 격려하며 종교의 본질이 변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종교기관이 협력하여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젊은이들이 세계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종교문화교육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상호 다른 종교를 존중하며 자신의 종교관을 건강하게 확립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교육은 성인들을 위한 계속 교육의 교과과정으로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미지를 통한 학습은 종교를 갖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세계의 종교문화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교육매체가 된다.

26) 박노자, 『백인이여, 불교가 그렇게 평화적인가』, 『한겨레 21』(서울: 한겨레신문사, 2010), 4. 26. 제807호, pp. 43-44.

참고문헌

- Baas, Jacquelynn. *Smile of the Buddha: Eastern Philosophy and Western Art*. University California Press. 2005.
- Eco, Umberto (ed.). *History of Beaut*. New York: Rizzoli. 2005.
- Elsner, Jas. *Art and the Roman Viewer: The Transformation of Art from the Pagan World to Christia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Grabar, Andre. *Christian Iconography: A Study of it's Origins*. Princenton: Princenton University Press. 1980.
- G. Wilkins, David. Schultz, Bernard. *Art Past Art Present*.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90.
- Honour, Hugh. Fleming, John. *A World History of Art*.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1995.
- Langer, Susanne K. *Problems of Art : Ten philosophical Lesture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57.
- Rowland Benjamin. *Art in East and West*. 최민 역. 『동서미술론』서울: 열화당. 1982.
- Seckel, Dietrich. *Kunst des Buddhismus*, 1962. 백승길 역. 『불교미술』 서울: 열화당. 1985.
- Thomas, Denis. *The Face of Christ*.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Garden City. 1979.

원고접수: 2010년 5월 21일 1차심사: 6월 3일 게재승인일: 6월 10일

연구자소개: 이정구

① 전공: 교회사, 문화신학 / 소속: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관심영역: 건축사, 미술사

③ 주요논저: 『한국교회건축과 기독교미술탐사』

④ E-mail: jkl@skhu.ac.kr

Abstract

The Image (Statue) of Christ and Buddha in 3-5th C.

Lee, Jeongku

Sungkongho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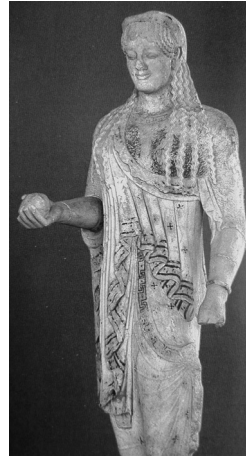
This is to find common images shared between Christ and Buddha by comparing Gandhāra Buddhist statues that appeared in the 3-5th centuries and early Christ statues. It was not until Gothic in the 11th century that Christ statues as exquisite as to compete with Gandhāra statues of the 3-5th centuries came into light. But it cannot be asserted that Christian art ran more than 700 years behind Buddhist art by such a simple comparison of expression techniques. It is more likely that the goals they longed to achieve by art were different. Gupta Buddhism had its goal at guiding people to the absolute stage, nirvana, through classical beauty of art and helping them transcend the limitations of transient present with more ease. While Buddhist statues of the 3-5th centuries wore smiling expressions, Christ statues of the same period were presented in various ways as his past public activities, most of which are nevertheless images of agony and atonement. The form of both Buddhist and Christian statues originate in Greek Apollonian statue, sharing the same image as a philosopher and a teacher.

The religious organizations ought to make common efforts in establishing an educational curriculum of religion and culture for children and juveniles to learn diversity and differences between religions of the world, to respect others' beliefs and to healthily settle their own view regarding religion.

Key words : 3-5th centuries, common images, Christ statue, Buddha statue, Gandara, Gupta, Apollonian statue, philosopher, teacher, difference, educational curriculum, religion,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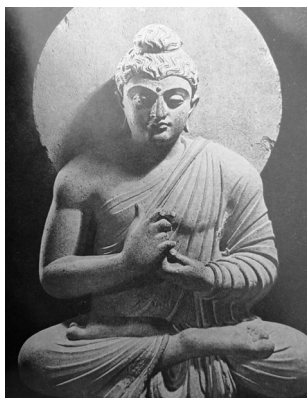
〈그림 1〉 Cptoline Venus,
기원전 300년,
로마 카피톨리노 박물관



〈그림 2〉 Kore,
BC. 6세기,
Athens, 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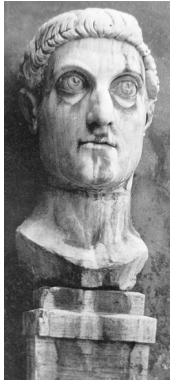
〈그림 3〉 그리스에서 간다라를 통한 석굴암 불상 경로



〈그림 4〉 설법하는 부처,
2-3세기 간다라,
캘커타 인도 박물관



〈그림 5〉 옥좌에 앉은 부처, 2세기, 마투라



〈그림 6〉 콘스탄틴 두상,
4세기 초
로마 팔라조 콘세바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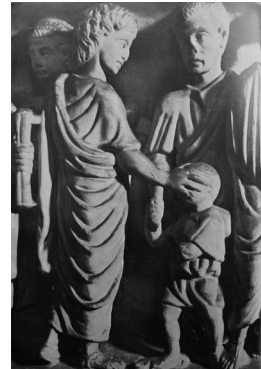
〈그림 7〉



〈그림 7-1〉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5세기 초, 대영박물관



〈그림 8〉



〈그림 8-1〉 4세기 로마부조,
눈먼 사람을 고치는 예수



〈그림 9〉 부처 머리,
3세기 간다라,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런던



〈그림 9-1〉 랭스성당,
성 니케즈의 천사



〈그림 10〉 불상, 1-2세기
파키스탄, 소장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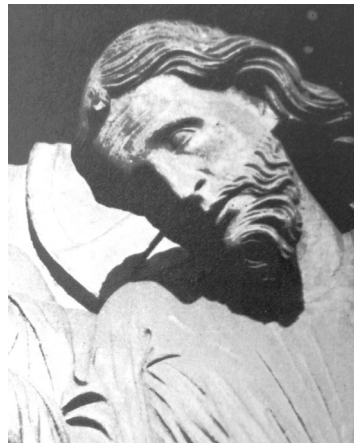
〈그림 11〉 부부, 기원전 1세기
카피톨린 미술관, 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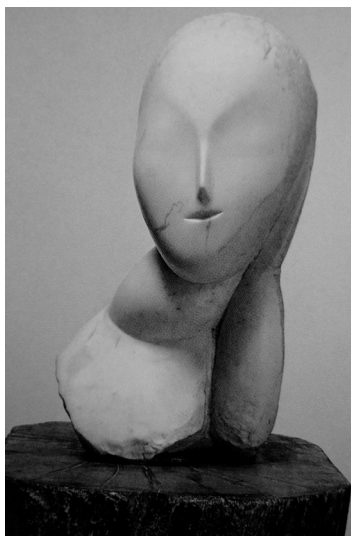
〈그림 12〉 착한목자, 3세기 후반, 바티칸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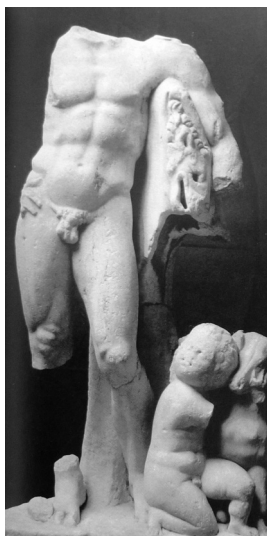
〈그림 13〉 구세주, 1225,
아미앵 성당



〈그림 14〉 그리스도, 1250-60,
스트라스부르크 성당



〈그림 15〉 뮤즈, 1912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그림 16〉 헤라클레스, 3세기 테살로니카 고고박물관



〈그림 17〉 착한목자, 4세기, 알렉산드리아 고고박물관



〈그림 18〉 빌라도 앞에선 그리스도, 350년, 석관, 바티칸 박물관



〈그림 19〉 라자로의 부활, 라티란 석관, 340년, 바티칸 박물관



〈그림 20〉 예수
4세기, 이스탄불



〈그림 21〉 불상,
4세기, 하다



〈그림 22〉 석굴암, 본존상
8세기



〈그림 23〉 부처입상,
마투라, 5세기